



산더미처럼 쌓인 소포 설날을 앞세 앞둔 19일 제주우편집중국에서는 설 선물 소포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직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분주히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선택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 I <상> 제주와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 선거 4·3으로 무효 '곡절'

현오봉·양정규 6선... 강창일 의원 내리 4선 기록 4·3사건 세상밖으로 나오기 전후 표심 변화 뚜렷 민주당 5연속 싹쓸이 기대 속 야당은 설욕전 체비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JIBS는 총선 보도 업무협약에 의해 3회에 걸쳐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첫 기획은 '제주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 '통계로 보는 제주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 등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됐지만 제주도는 4·3사건으로 선거무효가 선언되고 1년 후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절이 있었다. 제2대 선거는 3개 선거구에서 역대 최다인 27명이 격돌했다.

제5대 선거는 제3차 개정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중앙선거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리한 공직선거였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인 경우 제주지역은 2개 지역구로 나눠 치러졌다. 제4공화국 유신체제 하에서 실시된 제9

대대 민주공화당 홍병철 후보와 무소속 양정규 후보가 당선됐다. 단일선거구에서 8명의 후보가 도전했다.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10대 선거에서는 현오봉 후보가 당선되며 6선 고지에 올랐다. 36세였던 변정일 후보는 제주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처음 치러진 제11대대 제주지역은 무소속이던 현경대, 강보성 후보가 당선됐다.

제13대 선거(1988년 4월 26일)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등 3개 선거구로 나뉘었다. 무소속인 고세진(제주시), 이기빈(북제주군) 후보가 당선됐다. 서귀포시남제주군은 강보성 후보가 당선된 주인공이 됐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3대대 낙선의 고배를 든 현경대(제주시), 양정규(북제주군), 변정일(서귀포시남

제주군) 후보가 모두 무소속으로 나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 고세진, 이기빈, 강보성 후보를 누르고 설욕에 성공했다. 선거사상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된 첫 사례였다. 이때까지 제주는 무소속이 강한 곳으로 분류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제15대 선거에서는 신한국당 간판을 내건 현경대, 양정규, 변정일 세후보가 나란히 2회 연속 당선됐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선거인 경우 제주지역은 사상 처음 3석 중 야당에서 2석을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다. 제주 4·3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 달라진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제주시는 현경대 후보(한나라당)가 당선됐으며, 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은 새천년민주당의 장정인, 고진부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북제주군 선거구는 재선거를 통해 양정규 후보가 6선의 고지에 오르게 된다.

제17대 선거(2004년 4월 15일)는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을, 서귀포시남

제주군 선거구로 바뀐 가운데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후보 등 열린우리당이 석권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인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선거에서도 4년 전 당선자들이 싹쓸이했다. 제주시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로 명칭이 바뀐 가운데 통합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선거에서도 민주통합당으로 나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이 당선되며 나란히 3선 고지에 오른다. 이 선거에서 제주 국회의원 선거의 산증인이었던 현경대 후보는 아홉차례 연속 출마(5회 당선)하는 기록을 남겼다.

제20대(2016년 4월 13일)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강창일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연속 4선에 성공한 가운데 새로운 주자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제21대 선거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론3사 공동취재단>

신임 제주행정부지사에 최승현 의정관

행정안전부, 20일자로 임명

행정안전부는 20일자로 최승현(58·사진)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임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서울 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보과장,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장, 대통령실 행정자



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의정관으로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을 총괄해 준비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 통합데이터센터 설립 '속도'

당초 출자기관 계획서 JDC 구축으로 변경 2021년 착공 목표... 3층 규모로 설립 예정

제주형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이 될 '제주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센터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제주 통합데이터센터는 '제주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5년)'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시행계획(2017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공공·민간에 대한 데이터 저장공간 제공 및 국내외 기업의 백업센터 유치 등을 위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와 행정시, 도교육청 전산실을 통합하고, 부서별 분산 관제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해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CCTV 관제센터 통합을 비롯해 도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전산실·백업센터 등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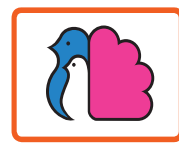
제주도가 이달초 공개한 '제주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 통합데이터센터는 총 사업비 928억원(부지비용 포함)을 투입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3층 규모(건축면적 8064.98

m²)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준공, 2023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사업 추진을 JDC,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JDC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JDC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JDC의 첨단시설사업 변경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JDC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시설을 임차 이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JDC와 제주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등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마음에온' 행복주택 제주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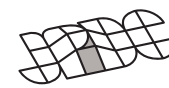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다

제주삼다수 사업 | 도민 주거복지 사업 | 감귤 가공 사업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의 자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